

## 자살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 다큐멘터리에 재현된 ‘우리’와 ‘그들’

이 하 나  
(이화여자대학교)

안 순 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 사회의 높은 자살률은 자살과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동반한다. 본 연구는 자살에 대한 한국 사회의 지배적 인식이 갖는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현실을 재구성하는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목표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미디어가 생산하는 주류 사회의 인식이라는 학문적 틀을 토대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통해 재현되는 자살 시도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KBS 1TV의 ‘행복 발전소’ 포기 제로 프로젝트를 분석 대상으로 토도로프와 채트먼의 서사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자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주류적 시각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자살에 대한 두 가지 지배적인 담론이 발견되었다. 첫째는 자살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사회에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는 개인적 책임 담론이었다. 다큐멘터리의 주인공들이 자살을 생각하게 된 원인이 모두 당사자들에게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으며, 현재 주인공들이 처한 상황은 그들 스스로의 의지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는 점들이 강조되고 있었다. 두 번째는, 정상적인 가족 안에서만 정서적 안정을 가질 수 있다는 정상 가정 담론이 발견되었다. 자살 위기에 놓인 주인공들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 속에 사는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었으며, 결손 되거나 해체된 가정 속에서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담론이 반복적으로 생산되고 있었다.

주요용어: 자살, 낙인, 사회적 시선, 미디어,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담론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A2A01010878)

\* 교신저자: 안순태, 이화여자대학교(soontae@ewha.ac.kr)

■ 투고일: 2015.7.31    ■ 수정일: 2015.10.1    ■ 게재확정일: 2015.10.8

## I. 서론

우리 사회의 높은 자살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살은 “나와 상관없는 일”, 혹은 “특정 누군가의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보건복지부, 2014; 한국자살예방협회, 2005). 본 연구의 목적은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에 앞서,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논하는 데에 있다. 자살에 대한 낙인은 자살 시도자에 대한 무관심과 외면으로 이어지고, 이는 자살 예방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WHO, 2014). 본 연구는 많은 사회에서 자살예방의 장애물로 간주되어 온 사회적 낙인(Cvinar, 2005; Eagles, Carson, Begg, & Naji, 2003)의 영향을 재고하면서, 자살 시도자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 탐구해 보고자 한다. 한국 사회가 자살을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는 작업은 공중보건 차원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마련해줄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가 자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주목한 대상은 미디어이다. 뉴스는 자살행위를 문제 있는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거나(남재일, 2010), 자살의 원인은 개인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시각을 강조한다(이하나, 안순태, 2013). 영화는 자살을 사회적 약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그려낸다(안신, 2013; 조규찬, 2014). 홀(Hall, 1982)은 미디어가 보여주는 현실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아닌 특정한 의미가 부여된 담론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주류 담론과 이를 둘러싼 복합적인 의미생산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미디어(Walters, 1999)를 분석하는 작업은 ‘우리 사회가 자살을 어떻게 말하고 해석하는가’를 넘어, ‘자살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통해 자살이 어떻게 재현되고 해석되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의미들이 생산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자살이라는 행위를 선택한 사람들의 재현 방식에 주목하여, 다큐멘터리가 이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부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미디어를 통해 재구성된 자살 인식을 살펴보는데 있어, 다큐멘터리 장르의 사실을 소재로 재구성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다큐멘터리는 사회적 관심이나 이슈를 다룸으로써, 현실의 모습을 성찰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프로그램 장르보다 시사적이고 계몽적인 성격이 돋보이며, 수용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프로그램 내용을 받아들이고, 각인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김민수, 2004; 전규찬, 1998).

지금까지 대부분의 자살 연구들은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왜 그들이 자살을 시도하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미디어와 자살 연구들 역시 사회학습이론을 기반으로 보도내용이 모방 자살에 미치는 영향력을 주로 주목했다(김연중, 2005; 김인숙, 2009; 김병철, 2007, 2010; 배준성, 허태균, 2010; 유현재, 송지은, 2012; 정승민, 박영주, 2009). 결과적으로, 자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주류적 시선이 무엇인지, 이러한 시선이 대중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형성하는지가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다. 기존 연구들이 미디어가 자살 방법을 학습시킨다고 주장했다면, 본 연구는 개인적 차원에서 논의되었던 자살을 사회적 차원으로 옮겨 이해해보고자 한다. 또한, 사전에 정해진 분석 틀에 근거한 기존의 양적연구들과 달리(김연중, 2005; 김인숙, 2009; 김병철, 2007, 2010; 박형민, 이민아, 2009; 유현재, 송지은, 2012), 본 연구는 질적접근을 통해 현실을 재구성하는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시도는 자살예방을 위한 비판 사회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본 탐구는 자살에 대한 한국 사회의 지배적 인식이 갖는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주류 시각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변화의 기반을 마련해줄 수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자살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 자살과 자살자를 향한 양가적 태도

오랫동안 자살은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되어 온 주제였다.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자연을 거스르는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사람들에게 자살은 “비정상적인 일탈행위”로 인식되었으며, 자살자 및 자살 시도자들은 비난과 수치심의 대상이었다. 2009년 한국종합사회조사에 따르면, 전체 1,599명의 응답자 중 68.9%가 “자살은 윤리적 죄악이다”라고 답했으며, 60.1%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 생명존중에 대한 국민 태도 조사(한국자살예방협회, 2005)에서도, 전체 1,025명의 응답자 중 82.9%가 “자살은 비정상적인 행동이다”라고 답했으며, 50.0%가 “가족이 자살하면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인식은 자살에 대한 은폐의 원인이 된다. 유족들에 의한 사망신고 시 자살로 기재되는 경우가 전체 자살자 중 약 25~44%밖에 되지

않는다는 자료(민문홍, 2008)는 자살에 대한 한국 사회의 침묵을 잘 나타낸다.

한국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사실이 10년째 지속됨에 따라, 한국 내 자살의 심각성에 대한 공중의 인지 자체는 높아졌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대통령·연예인·기업 총수 등 여러 유명 인사들의 자살로 인해, 그동안 터부시 되고 은폐 되던 자살이 다소 수면 위로 올라온 듯 보인다. 전 국민 대상의 조사 결과, “자살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된다”는 질문에 대해 2005년 당시엔 58.1%가 동의했지만(한국자살예방협회, 2005), 2013년엔 46.1%로, 동의 비율이 약 12%가량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4). 이와 더불어, 2013년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79.8%가 자살이 예방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7.7%가 자살을 막기 위해 애써야 한다고 답했다(보건복지부, 2014).

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는 자살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크게 남아있다. 최근 조사를 살펴보면(보건복지부, 2014), 89.7%가 “자살하는 사람은 가족들에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라는 데에 동의했으며, 58.4%가 “자살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자살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답한 사람들이 53.8%나 되었다. 이는 곧 “자살”과 “자살 행위자”를 대하는 태도가 다름을 의미한다. 즉, 자살에 대한 노골적인 편견은 사라졌을지라도 자살 행위자를 향한 은밀한 편견이 잠재된 것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자살을 우리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로만 치부한다는 데에 있다. 일반 국민들은 물론 정책결정자들조차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정상인들과 다르며, 자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단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한다(한국건강증진재단, 2013).

본 연구는 이러한 이분법적 논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미디어 담론의 효과는 대중들로 하여금 구성된 현실을 실제적 현실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사회적 약자들의 재현 방식을 검토한 국내외 연구들(김선임, 2001; 양정혜, 노수진, 2012; 장혜경, 우아영, 2011; Philo, 1993; Wahl, 1995)에 따르면, 미디어는 지배층이 보고 싶어 하는 방식으로 소수자와 관련된 이미지나 이야기들을 그리고 있다. 남재일(2010)은 국내 신문이 자살에 대한 다양한 담론 중 유독 자살 동기만을 강조하여 보도하며, 이조차 외부자 관점으로 추측하여 이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재현된 자살 행위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틀을 파악하고자 한다.

## 2.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미디어 재현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가 현실 그 자체를 투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Entman, 1993). 현대사회의 미디어는 특정 가치와 맥락에 의존하여 현실의 모습을 재현하고, 재구성하기 때문이다(Lippman, 1922). 예를 들어, 성범죄 뉴스가 여성을 신체적으로 취약하고 수동적으로 묘사하며, 피해자인 이들을 가해자인 남성보다 더 비난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가부장적 관념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김훈순, 2004). 정신 장애인을 폭력적이고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대상으로 그려지는 다큐멘터리 역시 소수자들을 비정상적이라고 위치지우는 사회적 관념이 내제된 결과물이다(장혜경, 우아영, 2011). 즉, 미디어가 정보를 선택하고 강조하는 기제에는 다양한 정치·사회·경제적 상황은 물론, 사회 내의 규범과 관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Hall, 1982).

미디어의 재현은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만들어 내기 쉽다(Hall, 1982). 소수자들에 대한 미디어 재현 방식을 살펴본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타자로서 배척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 뉴스보도(양정혜, 2007)와 다큐멘터리(홍지아, 김훈순, 2010)는 결혼이주여성을 출신국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평가하며, 소위 후진국에서 온 여성들일수록 수동적이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재현하고 있었다. 장애인들 역시 드라마(최성주, 2001)는 물론 오락 프로그램(박웅진, 2001)과 다큐멘터리(양정혜, 노수진, 2012; 장혜경, 우아영, 2011)에서 모두 일반인들보다 부족한 동정의 대상으로 묘사되었다. 또한, 장애는 사회적 원조보다 개인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는 시각이 당연시됨으로써, 사회가 다룰 수 없는 차별적 존재들이라는 담론을 생성하고 있음이 위 연구들에서 공통으로 지적되었다.

결론적으로, 미디어가 재현하는 소수자들은 주류집단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 즉 '우리'와 다른 '그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분법적 재현은 '그들'이라는 소수자들을 위축시키고 '우리'의 사고 범위를 제한시키고 정당화시킨다. 소수자들이 사회의 주변화된 집단이라는 고정관념이 미디어에 의해 생산될수록, 당사자들은 물론 수용자들도 미디어가 전달하는 이미지가 마치 모든 소수집단의 전형인 것처럼 인식하게 된다(양정혜, 노수진, 2012; 홍지아, 김훈순, 2010). 그렇기 때문에 특정 사람들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자살 역시 미디어에서 어떻게 비추어지고 전달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 3. 다큐멘터리 장르적 특성과 현실 재현

앞서 설명한 것처럼,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는 수용자들이 특정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만든다(Storey, 2001).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 구성된 현실을 실제의 현실과 구분 짓지 않기 때문이다(Hall, 1982; Weimann, 2000). 이러한 현상을 두고 거브너(Gerbner, 1973)는 미디어가 수용자들로 하여금 사회를 보는 방법을 계발(cultivation)한다고 보았다. 그는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그 속에서 전달되는 이미지·가치·이데올로기 관점으로 실제 세상을 바라본다고 설명한다. 이는 텔레비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정의하고, 사회적 질서를 정당화하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반복시키기 때문이다(Morgan, Shanahan, & Signorielli, 2009).

이러한 측면에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는 사실을 소재로 재구성된 허구라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는 작업은 더욱 의미를 갖는다. 대체적으로 다큐멘터리는 사회적 관심이나 이슈를 다룸으로써, 현실의 모습을 성찰하고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은 수용자들로 하여금 드라마나 영화 등 다른 프로그램 장르보다 시사적이고 계몽적인 성격을 들게 만들며, 자연스럽게 프로그램 내용을 비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각인시키게 한다(장혜경, 우아영, 2011; 전규찬, 1998). 하지만 다큐멘터리는 현실을 순수하게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자의 기획의도에 따라 현실을 해석하여 재구성된 것이다.

최근 다큐멘터리 추세는 소외된 사람들을 다루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다큐멘터리가 오히려 소수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킨다고 지적한다. 장혜경과 우아영(2011)의 분석 결과, 정신 장애인들을 다룬 다큐멘터리는 오히려 이들을 폭력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대상으로 위치시키며, 관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편견을 재생산하고 있었다. 김선임(2001)은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소외자·취재자·전문가의 표현방식(카메라 시선과 같은 영상적 표현 방법)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카메라 시선을 낮게 처리한다든지, 주인공을 모자이크로 가리는 등의 촬영 기법은 오히려 소수자 발언의 힘을 약화하고,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묘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한다(김선임, 2001).

결국 다큐멘터리 역시 다른 미디어 장르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현실을 재현해내는 하나의 방식에 불과하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나타나는 현실은 마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 같지만, 일정한 관습에 따라 재구성된 현실인 것이다(원용진, 1999). 무엇보다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다큐멘터리는 지배층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기 매우 적절한 장르라고 할 수 있다(원용진, 1999). 이러한 점에서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자살 시도자들의 재현 방식을 분석해보는 것은 이들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공적 담론을 파악해봄으로써, 자살에 대한 대안 담론을 모색해보는 계기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겠다.

#### 4. 공중보건학 관점에서 살펴본 자살 낙인의 위험성

낙인은 특정 사회의 가치 혹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정상(주류)과 비정상(비주류)의 차이를 인식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대상에 불명예를 주는 속성이다(Goffman, 1963; Link et al., 1989; Scheff, 1974). 고프만(Goffman, 1963)은 미디어를 사회적 가치의 재현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미디어는 곧 낙인을 찍는 준거를 마련해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상징적 텍스트로 가득한 미디어와의 상호작용은 낙인을 자연스럽게 학습시키는 보편적인 과정 중 하나다(Corrigan, 2000). 반두라(Bandura, 1977) 역시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을 통해 미디어가 사람들에게 사회의 가치와 이를 이해하는 방식을 학습시킴을 증명했다. 즉, 개인은 미디어와의 상호작용에서 습득한 정보로 사회가 자신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지각하며, 기대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에 조화롭게 적응한다(Stryker, 2008). 본 연구는 낙인의 습득과정을 소수자를 향한 주류사회의 인식인 사회적 낙인(Social-stigma)과 사회적 낙인을 내면화하여 자신을 스스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낙인(Self-stigma)으로 구분하여, 자살 낙인의 위험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과 정체성이론(Identity Theory)은 미디어가 재현하는 소수자들의 모습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적 틀을 제시한다. 먼저, 미디어가 주입한 메시지를 통해 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학습하고 이들을 향한 태도를 형성하는 것은 귀인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귀인이란 개인이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틀으로써, 사건이나 행동의 원인을 지각하고 추리를 통해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다(Weiner, 1980).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는 정보처리과정으로, 추후 감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Corrigan, 2000; Schwarzer & Weiner, 1991).

이 이론에 의하면, 많은 사람이 문제나 행동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를 개인 스스로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판단하며, 이러한 통제성은 고정관념에 의한 결과로 나타나는 차별, 즉 낙인을 인식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Corrigan, 2000). 예를 들어, 노력은 개인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얻게 된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은 비난과 배척 등과 같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Corrigan & Watson, 2002).

대체로 귀인을 통한 평가 과정은 정교한 정보처리과정이 아닌 휴리스틱(heuristics)적 처리 과정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평가할 때에는 사회적으로 보편화된 인식과 고정관념화된 사고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 자살한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적 판단(심적으로 나약하고, 무능력하다)이 사회적 차별을 일으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더욱이 자살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결국 자살을 시도하거나 생각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낙인을 형성하게 하며, 이들을 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정체성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자아는 사회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근거하여 형성된다(Stryker, 1991, 2008). 여기서 역할이란, 개인적 속성 및 구별되는 행위와 같이 사회적 범주에 따라 부여되는 규범적 기대로, 특정 범주에 속한 사람들은 어떠한가에 대한 공유된 관점이다(Burke, 1991). 결국, 개인의 주체는 본질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회가 부여한 역할에 근거하여 형성되는 것이다(Akers, 1973, 1998).

낙인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자신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평가와 역할이 어떠한지 학습하게 되며,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로부터 멀어지려 한다. 소수자들의 고립은 주류 담론이 마치 옳은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결국 소수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별다른 저항 없이 순응하게 된다. 이는 사회적 낙인을 규범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며, 소수자 문제를 그들의 문제로 치부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다. 결론적으로, 일반인과 소수자를 구분 짓는 미디어의 이분법적 전개와 이러한 메시지의 반복적 제공은 자살자들을 사회적 약자로 고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사회가 자살을 바라보는 시각뿐만 아니라, 자살자/자살시도자로 구분되는 사람들에게까지 작용하여 스스로의 가치를 평가 절하시킨다.

즉, 미디어가 자살 시도자들에 대한 무능력함 혹은 개인적 노력의 부재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수용자들은 자살 시도자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차별과 저센 비난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살을 개인 차원의 문제로 인식시킴으로써, 사회



구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를 감안하면, 자살 및 자살 시도자들에 대한 미디어의 재현 방식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미디어가 전달해주는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자살을 향한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시각을 확인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특히,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큐멘터리는 사회의 지배적인 인식을 주입 시키기에 적절한 장르이며, 여기에 묘사되는 소수자 현실과 극복방안은 주류 사회가 원하는 그대로가 투영된 것이다(Nichols, 2001). 이러한 점에서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자살 시도자들의 재현 방식을 분석해보는 것은 이들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공적 담론을 파악해보므로써, 자살문제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보는 작업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 국내 다큐멘터리는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을 재현하는 데 있어 어떠한 점을 강조하는가?

연구문제 2. 국내 다큐멘터리는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부여하는가?

### Ⅲ. 연구방법

####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자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검토하기 위해, KBS 1TV의 ‘대한민국 행복 발전소’ 코너 중 ‘제로 프로젝트<sup>1)</sup>’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국내 다큐멘터리 중에는 자살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은 많지 않다. 조사결과, 2011년 5월 MBC에서 방송된 다큐스페셜 ‘자살, 한국 사회를 말하다’와, 2013년 9월 EBS에서 방송된 다큐프라임 ‘33분마다 떠나는 사람들, KBS 1TV의 ‘행복 발전소: 제로 프로젝트’가 유일하였다. MBC와 EBS에서 방송된 다큐멘터리는 ‘자살예방’이라는 제작의도를 바탕으로, 자살문제에 당면한 사람들보다 전문가 집단의 인터뷰 및 해외사례들이 주로 등장한다. 반면, KBS의 프로그램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등장하며, 이들의 일상모습이 전달된다. 또한, 최대 2부작으로 방영되는 특집 다큐멘터리와 비교하면, ‘행복 발전소’는 매주 수요일마다 주기적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행복 발전소’가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분석대상이라고 판단되었다.

‘행복 발전소’는 약 1시간 동안 3개의 코너를 방송하는데, ‘제로 프로젝트’도 그 중 하나다. ‘제로 프로젝트’는 ‘포기 제로 프로젝트: 자살하지 마세요’라는 이름으로, 2013년 10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약 20분간 총 9회에 걸쳐 자살 문제를 다루었다. 9주 동안의 방송에는 6명<sup>2)</sup>의 사연이 소개되었다(표1 참조). 각 인물은 한 회에 한 번만 등장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2주 혹은 3주에 걸쳐 등장하기도 했다. 즉 프로그램 구성의 특징상, 1개의 프로그램을 하나의 일화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기에 9회의 프로그램을 모두 분석하였다. 이에 분석과정에 있어 세부 회차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9회 방송분을 전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보았다. 분석 자료는 KBS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다시보기 코너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 
- 1) 해당 프로그램은 방송사에 의해 시사·교양프로그램으로 분류되지만, 사실 명확한 장르구분이 어려웠다. 이에 연구자들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허구적인 해석 대신 현실 그대로 그린 장르”라는 다큐멘터리 정의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을 다큐멘터리의 하나로 보기로 하였다.
  - 2) 포기 제로 프로젝트의 주된 인물은 본래 7명이다. 그러나 이 중 1명이 제작진과 만난 장면만 방송되고 그 이후에 등장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 사람을 제외하고, 6명의 이야기만을 분석하기로 했다.

표 1. 등장인물 특징

| 등장인물                | 특징                             | 방송날짜(회)            |
|---------------------|--------------------------------|--------------------|
| 1 여, 28세<br>정수진(가명) | -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어린 시절 가정폭력 경험  | 2013년 10월 2일(25회)  |
|                     | - 20살에 가출, 현재까지 혼자 생활하고 있음     | 2013년 10월 16일(26회) |
|                     | - 학자금 대출로 인한 빚, 취업실패 → 경제적 어려움 | 2013년 10월 23일(27회) |
|                     | - 자살시도 경험, 우울증                 |                    |
| 2 남, 26세<br>김명섭     | - 가정불화로 인한 아버지의 자살             | 2013년 10월 16일(26회) |
|                     | - 사고로 인해 오른쪽 다리 절단             | 2013년 10월 23일(27회) |
|                     | - 할머니가 생계를 꾸려나감 → 경제적 어려움      | 2013년 10월 30일(28회) |
|                     | - 자살시도 경험, 우울증                 |                    |
| 3 남, 49세<br>이영석     | - 초등학교 졸업 후 13세부터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함 | 2013년 10월 23일(27회) |
|                     | - 우울증을 앓고 계신 어머니와 임대아파트에서 생활   | 2013년 10월 30일(28회) |
|                     | - 빚, 구두방 운영 → 경제적 어려움          | 2013년 11월 6일(29회)  |
|                     | - 자살시도 3번, 어머니와 동반 자살시도        |                    |
| 4 남, 76세<br>김영권     | - 중풍에 걸린 아내를 22년간 보살핌          | 2013년 11월 6일(29회)  |
|                     | - 5년 전 아들 자살                   | 2013년 11월 13일(30회) |
|                     | - 4개월 전 아내와 사별 후 홀로 지내음        |                    |
|                     | - 자살시도 경험                      |                    |
| 5 여, 32세<br>이수영(가명) | - 알코올중독자인 아버지의 가정폭력            | 2013년 11월 13일(30회) |
|                     | - 소아당뇨를 방지하여 현재 만성신부전증, 망막증    | 2013년 11월 20일(31회) |
|                     | - 자살시도 2번                      |                    |
| 6 남, 73세<br>박석(가명)  | - 5급 행정공무원으로 30년 공직생활          | 2013년 11월 27일(32회) |
|                     | - 친인척에게 사기 당해 재산을 모두 잃음        | 2013년 12월 4일(33회)  |
|                     | - 6년 전 아내와 사별, 자식들과 연락 두절      |                    |
|                     | - 일용직 근무, 고시원 생활 → 경제적 어려움     |                    |
|                     | - 자살시도 경험                      |                    |

## 2. 분석방법

김훈순(2000)은 텔레비전 다큐멘터리가 대표적인 서사물로서 우리에게 현실 속 이야기를 전달한다고 지적한다. 국내외 여러 연구자(김훈순, 2000; 양정혜, 노수진, 2012; 최현주, 2006; 홍지아, 김훈순, 2010; Giles, 2003; Hodgetts & Chamberlain, 1999)들은 다큐멘터리 이야기 속에 내재된 메시지를 분석하기 위해 서사분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위의 선행 연구들에 따라, 본 연구 역시 자살 및 자살 시도자들을 향한 우리 사회의 주류적 시각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행복 발전소: 포기 제로 프로젝트’의 서사구조(narrative)를 분석하였다. 서사는 의미를 전달하는 기본적 형식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현실을 인식 및 경험케 하는 사고체계로서 기능한다(Todorov, 1997). 특히

서사는 단편적인 조각들이 모여 시간적 흐름(temporal order)에 따라 의미 있게 구성된 이야기로, 이 과정에는 강조, 생략 등의 전략들이 사용된다(McComas & Shanahan, 1999). 서사이론을 연구한 학자들(Ball-Rokeach & Loges, 1996; Gronbeck, 1983)은 공통적으로 서사는 집단 가치를 유지하기 원하며, 이는 사회의 지배적 신념이나 태도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점에서 서사분석은 이야기가 구성된 원리와 규칙성을 파악하여 내재되어 있는 이념과 가치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채트먼(Chatman, 1978)은 모든 서사물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와 관련한 이야기(story)와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와 관련한 담론(discourse)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채트먼(Chatman, 1978)의 분석 방법을 차용하여, '행복 발전소: 포기 제로 프로젝트'의 이야기 변화 과정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파악한 후(통합체 분석), 등장하는 인물들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계열체 분석). 또한, 본 연구는 대립되는 인물들의 관계와 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권력 작용의 관계와 서사가 강조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파악하였다.

담론은 서사물의 언술표현방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서술자들은 1) 화면 속 주인공, 2) 화면 속 조력자, 3) 영상을 설명하는 내레이션, 4) 화면 밖에서 프로그램을 지켜보는 스튜디오의 사회자들이다. 본 연구는 서술자들이 발화한 텍스트들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보다 체계적이고 비판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페어클라우(Fairclough, 1995, 2001)의 비판적 담론 분석 방법<sup>3)</sup>을 이용하였다. 페어클라우는 특정 단어의 반복적 사용은 곧 단어가 상징하는 방향으로 담론을 고정시키는 것이며, 단어와 단어가 서로 응집할 때 비로소 언어에 실천적 힘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반복되는 어휘와 특징적인 문장들을 중심으로 서술자들의 텍스트들이 어떠한 의미를 생성하는지, 대립되는 담론들이 있는지, 이러한 담론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자살 인식 및 이미지와 어떻게 접합되는지 살펴보았다.

---

3) 페어클라우(Fairclough, 1995, 2001)는 텍스트 속에 시대적 신념, 관계, 정체성 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텍스트를 사회문화적 맥락과 연결시켜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의 방법은 텍스트와 담론적 실천, 사회문화적 실천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해당 분석방법은 단순히 담론에 사용된 텍스트를 살펴보는 것을 넘어, 담론의 생성과정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연결하는 통합적인 분석이라 할 수 있다.

## IV. 분석결과

### 1. 이야기 분석결과

#### 가. 프로그램 시간적 경과에 따른 인물별 이야기 변화 과정: 통합체 분석결과

시간적 흐름에 따라 서사구조의 변화를 들여다보는 작업은 자살에 대한 제작자의 관점을 들여다보게 해준다. 이에 본 연구는 등장인물들을 중심으로 어떠한 이야기들이 진행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는 프로그램 주인공들인 '자살 시도자'와 그들을 둘러싼 인물들 중심의 이야기 전개 방식을 알아보고자, 방송 회차별 순서에 따른 인물별 이야기 흐름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결론적으로는 인물별 이야기가 공통된 구조를 띄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 ① 28세 여성, 정수진(가명)

정수진씨가 살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소개 → 두 명의 MC와 한 명의 자살예방전문가가 정수진씨를 만나러 감 → 정수진씨의 불우했던 과거에 대한 회상 → 취업을 위해 편의점과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정수진씨의 노력이 비춰짐 → 심리치료사와의 만남 → 이미지 컨설팅 센터 방문 → 웃음치료사 진진연씨가 정수진씨를 만나러 옴 → 진진연씨의 현재와 과거의 모습이 재연을 통해 설명됨 → 둘이 함께 등산을 하면서 진진연씨는 정수진씨에게 현재의 힘든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것을 강조하며 조언을 해줌 → 진진연씨 앞으로 힘들어도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메시지가 적힌 정수진씨의 편지가 도착됨

##### ② 26세 남성, 김명섭

두 명의 MC가 김명섭씨의 집을 방문하여 그의 현재 상태와 과거의 일에 대한 대화를 나눔 → MC들은 김명섭씨와 함께 정신과병원에 방문하여 정신과 상담을 받게 도와줌 → MC들은 김명섭씨와 함께 수영장에 동행하여 그에게 수영강습을 등록해줌 → MC들이 김명섭씨를 다시 만나러왔을 때 그는 공무원 학원에 다니고 있었으며, 그는 MC들에게 자신의 꿈을 찾았으며 더 이상 집에서 무료하게 있지 않겠다는 다짐을 내비침

③ 49세 남성, 이영석

작은 구뫼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영석씨에게 MC와 자살예방전문가가 찾아감 → 이영석씨의 과거 삶과 현재의 생활고 소개됨 → MC와 자살예방전문가는 이영석씨를 데리고 연극 심리치료를 받으러 감 → MC와 자살예방전문가는 이영석씨를 데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감 → 이영석씨는 어머니와 함께 요가 수업을 받으러 감 → 이영석씨는 그동안 동반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어머니를 모질게 대했던 스스로를 반성하며 다리가 불편한 어머니를 위해 구두를 수선함 → 집에 온 이영석씨가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며 앞으로 술도 끊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약속함

④ 76세 남성, 김영권

연락되는 가족이나 친구 없이 외롭게 홀로 살고 있는 김영권씨의 현재 모습이 비춰지고 그의 과거가 설명됨 → 2명의 MC와 함께 정신과 병원에 방문하여 자살 위험도 검사를 받음 → MC들과 함께 농작 공동체에 참석하여 김영권씨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농사일을 함. 농작 공동체에서 만난 사람들은 김영권씨에게 괴로움과 슬픔을 이겨내라고 북돋아줌 → 김영권씨는 복지관에서 하는 난타공연에 참석하여 그동안 속에 묻어두었던 응어리를 품 → 김영권씨는 앞으로 삶에 대한 애착을 갖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함

⑤ 32세 여성, 이수영(가명)

이수영씨는 제작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살기 힘들다고 토로함 → MC들은 이수영씨 집에 방문하여 그녀의 현재 모습과 과거 이야기를 들음 → 이들은 함께 심리상담소를 방문하여, 그녀의 마음상태를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줌 → 미니어처 공방에 동행하여 그녀가 평소 하고 싶던 활동을 같이 하고, 이를 통해 이수영씨는 집밖으로의 외출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표현함 → 이수영씨의 방송을 보고 연락을 취한 치과의사가 그녀의 망가진 치아를 치료해줌 → 자살시도경험이 있는 웰다잉강사가 이수영씨의 집을 방문하여 자신의 과거와 이를 극복한 현재에 대해 이야기 해줌 → 며칠 후 이수영씨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고, 앞으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함

⑥ 73세, 박석(가명)

한 명의 MC와 자살예방전문가는 고시원에서 홀로 살고 있는 박석씨를 만나러 감 →

박석씨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친인척에게 사기를 당해 퇴직금과 재산을 모두 잃어 버렸다는 이야기와 현재 취업이 되지 않아 경비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함→이들은 함께 심리치료를 받으러 감→노인인력개발원을 찾아 박석씨의 취업을 위해 도움을 줌→박석씨는 취업센터로부터 일자리를 추천받아 첫 출근을 하지만, 쌀과자를 만드는 공장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하고, 결국 일자리를 포기함→심리치료센터에 동행하여 박석씨의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대한 상담을 받게 함→박석씨는 아내의 낱골당을 찾고, 아내와 제작진들을 향해 열심히 살아보겠노라고 다짐함

9주 동안 진행되는 ‘포기 제로 프로젝트: 자살하지 마세요’편은 매회 새로운 인물들이 추가되고, 등장하는 인물들이 조력자들을 만나 변화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비록 6명의 주인공들이 처한 상황은 제각각이지만, 이야기의 전개과정은 대체적으로 “현재의 불안정한 상태 → 과거 회상 → 조력자 도움 → 주인공 불응 → 조력자 도움 → 주인공 개화”로 비슷한 구조를 띄고 있다.

이야기는 프로그램 MC와 자살예방전문가로 구성된 포기 제로 프로젝트팀이 자살 위기에 처한 주인공들을 찾아가고, 주인공들의 현재 모습이 비춰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취업이 되지 않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 몸이 불편해 외부와 단절되어 살아가는 모습,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 하는 모습 등 주인공들의 현재 상태는 언론이나 통계적 결과에서 주로 지목되는 자살의 주요 원인과 전형적인 자살자에 대한 묘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주인공들의 현재 모습과 함께 회상되는 과거의 모습은 이들이 왜 현재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들의 과거가 설명될 때 공통적으로 가족 이야기가 등장한다. 알코올중독자인 아버지, 가정폭력, 아버지의 무능력, 자살로 목숨을 끊은 아버지와 아들, 가족들의 배신 등 6명의 주인공들은 모두 평범하지 않은 가정생활을 경험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가정환경의 과거가 주인공들의 현재 모습을 만들었다는 식의 이야기 전개 방식이다.

### 자살 위기의 원인: 비정상적 가정환경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6명은 모두 불우한 비정상적 가정생활을 경험한 공통점을 가진다. 과거의 불행은 개선되지 못한 채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져 이들을 괴롭히고 있다. 정수진

씨는 알코올중독자인 아버지로 인해 가정폭력에 시달렸다. 이를 견디다 못해 20살이 되던 해에 집을 나와 가족과 연락을 끊고 혼자 살고 있다. 이영석씨는 무능력한 아버지를 대신해 어려서부터 경제활동을 해야만 했다.

“괴물, 쓰레기. 엄마 머리채 잡고 질질 끌고 다니는 일은 뭐 맨날 있었고 술 먹고 오면 그날은 온 집안 식구들이 밤에 잠을 잘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매일이예요 매일매일.” (정수진, 25회, 44'34")

“아버지란 존재가 저는 진짜 싫어요. 지금도 싫어요. 지금도 돌아가셨지만 불쌍은 한테 싫어요. 너무 무능했어.” (이영석, 27회, 49'18")

이수영씨는 집안 형편이 어려운 편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의 불화로 인해 방치된 청소년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약사였지만 소아 당뇨에 걸린 이수영씨를 전혀 돌봐주지 않았다. 당뇨 합병증으로 만성신부전증과 망막증에 걸렸으며, 매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녀는 “너무 밍고 싫은 거예요. 진짜 용서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아파서. 그들(부모님)이 그렇게 방치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30회, 45'47")라며 자신의 불행한 삶이 모두 부모 때문이라고 원망한다.

김명섭씨의 아버지는 가정불화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홀로 떠난 아버지가 불쌍하기도 하지만 원망스럽다”(26회, 48'00")고 말한다. 이들 4명은 자신이 자살을 시도할 만큼 불행해진 까닭이 온전치 못했던 가정환경, 특히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적으로 불행해진 것도, 병을 얻은 것도 모두 아버지가 가정에 충실치 못했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와 반대로 박석씨는 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버지였다. 공무원이었던 박석 할아버지는 한때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재산을 모두 사기당한 후 빈털터리가 되었다. 재산 탕진의 충격으로 아내까지 세상을 떠나자, 박석 씨 자식들은 모든 탓을 그에게 돌리고 연락을 끊은 상태다. 김영권 씨의 아들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했다. 김영권 씨는 자신의 무능력으로 인해 아들을 잃었다고 자신을 자책한다.

결과적으로, 본 프로그램은 주인공들이 겪는 불균형이 불행한 가정환경 때문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주인공들의 가정은 모두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sup>4)</sup>의 범위에서 벗어난다. 이야기의 흐름에 따르면, 주인공



들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에는 사회가 인정하는 건강한 가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족,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가족이란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 “소중한 가족” 등의 메시지들이 지속해서 강조되면서, 온전한 가족의 필요성이 드러난다. 이러한 모습들은 결국 건강하지 못한 가정은 열등하고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는 의미를 생산하며,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정상적인 가족 이외에는 모두 문제가 있는 가족이 되어 버린다.

### 자살 위기 극복방법: 개인의 노력

불균형이 새로운 균형으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힘은 개인적인 노력이다. 자살 위기에 처한 주인공들에게 내려진 초기 처방은 심리적 안정화이지만, 주인공들이 상담치료에 순응적이거나 방문 후 바로 상태가 개선되는 모습이 그려지진 않는다. 오히려 화를 내거나 폭력적인 주인공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들의 불안정한 상태를 더욱 강조한다. 이에 포기 제로프로젝트팀은 주인공들이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를 시도하고, 이는 주인공들이 스스로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현재 삶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일 때까지 계속된다. 결국 본 프로그램은 자살이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발생하는 충동적인 행동이며, 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 스스로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상담과 치료를 통해 회복될 수 있는 정신건강의 문제는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주인공들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위기에 처한 것으로 연결시킨다. 물론, 조력자의 도움이 변화의 계기가 되긴 하지만, 조력자의 역할은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로 강조된다.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주된 조력자들은 제작진·연극 심리치료사·심리상담사·자살전문가 등이다. 이들은 구체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는 정신력을 자극하는 존재로 위치한다. 개인의 변화를 강조하는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조력자들의 모습에서 전문적이고 특화된 회복 노력의 특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우울증의 개선이나 심리적 안정 등과 같은 구체적인 결과물보다는 조력자들에 의해 알게 된 자신들의 문제점과 어쩔 수 없이 갖게 된 자신감이 전부다. 결국, 주인공들은 현 상황에서 할 방법은 스스로 노력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이를 통해 그동안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자신을 질책하게 된다.

4)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3항의 건강가정에 대한 정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자신이구요. 자신을 믿고 사랑하게 되면 어떤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그 힘으로 또 살아내요. 한번 살아봐요 일단은.” (웃음치료사, 28회, 51'42")

“이제 필요한 거는 내가 이제 터널을 지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 내가 터널을 지나지 않으면 그 안에 그냥 갇혀 있어요.” (정신과 의사, 29회, 35'36")

“항상 마음을 크게 잡숫고 이겨내야 해요. 괴로움과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면 쓰러져요. 그러니까 이겨내야죠.” (자살위기 극복자, 30회, 39'58")

특히, 주인공들과 비슷한 경험이 있지만 이를 스스로 이겨낸 2명의 조력자들의 등장은 현실에 대한 극복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음을 강하게 인식시킨다. 이들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오히려 주인공들의 낙담을 강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이다. 조력자들의 메시지는 개인 스스로 열심히 노력했다면 자살을 시도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포한다. 다른 조력자들과 달리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조력자들의 등장은 자살의 원인을 개인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으며, 통제하지 못하고 자살 위기에 빠진 것은 오히려 개인의 책임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강조한다.

“못해도 일단 다시 한 번 부딪혀보려고요.” (정수진, 25회, 45'14")

“어차피 살 거면 제가 이겨내야죠.” (김명섭, 26회, 50'21")

“제가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좀 용기를 좀 내보려구요.” (이수영, 30회, 42'54")

방송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자살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외로움·질병으로 인한 고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그러나 회복노력을 통해 새로운 균형을 맞이한 주인공들의 모습은 우울증이 회복되었다든지, 취업이 되었다든지 등 현실의 실질적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즉, 이들이 자살을 결심하게 된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들의 마지막 모습은 모두 행복하고 활기 있게 묘사되고 있다. 불행했던 그들이 갑자기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인공들 스스로 마음가짐을 바꿨기 때문이다.

한 예로, 취업이 되지 않아 고민하는 정수진씨는 “다른 사람은 잘 하는데 왜 나는

못할까...진짜 내가 부족한 게 많아서 그런 거 같다”(25회, 47'34”)며 스스로를 질책하는 장면이 방송된다. 이어서 들리는 목소리는 “무엇보다 자신을 좀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25회, 53'02”)이다. 또한 제작진은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 수진씨를 위해 이미지컨설팅센터에 데리고 간다. 상담사는 “면접관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은 수진씨의 어떤 외모나 목소리, 태도, 그것으로 수진씨를 판단하는 것을 꼭 이해하시고 받아들여야 해요”(25회, 36'17”)라고 말하며, 외모를 변화시킬 것을 강조한다. “화장 지우지 마요. 그리고 자. 아니 한 일주일 동안 세수를 안 했으면 좋겠어”(25회, 37'50”), “외모관리는요 단순히 이쁘진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결국 내면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25회, 38'07”)라는 발언들은 자살을 결심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었던 취업에 대한 책임 역시 결국 당사자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주목할 점은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의 효과보다 주인공들의 분노, 폭력성 및 정서적 불안감이 강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면들은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라는 또 다른 낙인을 고착화 시키고 있다.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정서적 불안과 분노가 스스로의 책임이고 노력에 의해서만 극복된다는 논리는 전문가 및 사회적 도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일축시키고 있다. 제 3자가 보기에 자살의 원인은 개인의 노력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통제 가능한 원인들이다. 결과적으로, 본 다큐멘터리는 현재의 모습은 본인이 자초한 결과라는 훈계와 함께, 자살 생각이 드는 것은 스스로 약해졌기 때문이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생산한다.

## 나. 등장인물 관계 분석: 계열체 분석결과

주인공들은 모두 소극적이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인물들로 묘사된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대신 자살을 선택해 삶을 포기하고자 한다. 주인공들의 무기력한 모습은 이들이 변화되길 재촉하는 조력자들에 의해 더욱 두드러진다. 특히 과거 자살 시도를 경험했지만 이를 극복하고 제2의 삶을 사는 조력자들의 등장은 이들을 더욱 무능하게 만들어버린다. <표 2>는 본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텍스트들을 바탕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과 이를 극복한 사람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주인공들과 대비되어 나타나는 사람들은 웃음치료사 진진연씨, 웰다잉강사 하지원씨이다. 진진연씨는 어린 시절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에 시달렸으며, 5번의 자살시도 경험이 있다. 현재 그녀는 이러한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웃음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다. 진진연씨는 정수진씨에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며, 아픔을 극복하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조언한다.

“주위 사람의 도움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런데 가장 중심은 나였지. 내가 나의 힘을 나를 일으켜 세워야 하나니까.” (진진연, 27회, 40'47")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더 많이 일부러 감사한 것을 찾아내려고 하고, 적고, 계속해서 적고 그러다보니 어느 날 제 입에서 그냥 스스럼없이 ‘아 감사합니까’라고 나오더라고요. 이야기가.” (진진연, 28회, 50'31")

표 2. 등장인물의 이분법적 구조

|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 : | 자살 위기를 극복한 사람        |
|---------------|---|----------------------|
| 자신의 현 상태를 부정함 | : | 현 상태를 받아들이고 극복하고자 노력 |
| 의욕이 없고 무기력함   | : | 활기차고 힘이 있음           |
|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  | : |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         |
| 희망이 없는 사람     | : | 희망을 보는 사람            |
| 노력하지 않는 사람    | : | 노력하는 사람              |
| 자책하는 사람       | : | 자신감을 갖는 사람           |
| 꿈이 없는 사람      | : | 꿈을 꾸는 사람             |

웰다잉강사로 일하는 하지원씨도 과거엔 4번이나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 혼전임신으로 미혼모가 되었으며,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경험도 있다. 그녀는 이수진씨에게 “절망만 있고 희망은 없는 것 같지만 내 먼 미래에는 어떤 게 나를 선물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32회, 38'58")라고 말하며, 자신과 같이 삶에 대한 희망을 품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것을 권유한다. 김명섭씨, 김영권씨 역시 비슷한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들 역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보다 오히려 희망을 갖고 삶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한다(26회, 50'35"; 30회, 39'28").

어려움 속에서도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조력자들의 메시지는 개인 스스로 열심히 노력했다면 자살을 시도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포하며, 오히려 주인공들의 무책임함을 부각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자살의 원인은 개인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되며, 통제하지 못하고 자살 위기에 빠진 것은 오롯이 개인의 책임으로 떠안게 된다.

주인공들과 조력자들의 대비를 통한 이분법적 구조는 주인공들의 회복노력 전과 후의 모습에서도 나타난다. 처음 화면에 등장한 정수진씨의 모습은 낡은 티셔츠에 운동복 바지, 슬리퍼 차림이었다. 평소의 생활을 묻는 제작진의 질문에 그녀는 “그냥 닥치는 대로 살다가 돈 없으면 굶고 노숙하기도 하고 그냥 막살았던 거 같아요”(25회, 45'14") 라고 답했다. 조력자들을 만나 도움을 받으면서 정수진씨는 “억눌린 것을 다스릴 수 있겠구나... 맨날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랐는데...”(25회, 50'28")라며 자신감을 드러낸다.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방법이 없으니까”(31회, 36'31")라고 삶의 의욕을 보이지 않았던 이수영 씨는 “왜 진작 이렇게 나와서 해볼 생각을 안 했을까요?”(31회, 40'40") 라며 무기력하게 집에서만 생활하던 지난날을 후회한다. “죽어야지. 살면 뭐할 꺼”(33회, 35'28") 라는 말을 입에 담고 지내던 박석씨도 “자꾸 약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새롭게 용서하고 잘 살게요. 걱정마요. 걱정마”(33회, 48'58") 라며 오히려 제작진을 안심시킨다.

결국, 본 다큐멘터리는 ‘자살을 생각했을 때와 자살위기를 극복했을 때’,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과 자살위기를 극복한 사람’의 차이를 뚜렷하게 구분 지어 보여준다. 특히 본 다큐멘터리는 개인의 노력으로 흑에서 백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제시한다. 이는 우리 사회가 원하는 모습으로 점점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켜가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통해 증명된다. 자살 충동과 위기는 개인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 2. 서술자들의 발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담론 분석

본 연구에서 분석한 다큐멘터리는 화면 속 등장하는 인물들 이외에, 화면 밖 내레이션과 프로그램 사회자의 설명이 함께 제공된다. 김훈순(2000)에 의하면, 다큐멘터리의 연속성은 해설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해석적 특징으로 인해 다큐멘터리의 서사적 성격이 강해지는 것이라고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화면 속 주인공과 조력자, 내레이션, 화면 밖에서 프로그램을 지켜보는 사회자들의 목소리를 모두 살펴보았다. 특히

언어가 사회적 실천의 한 형태라는 비판적 담론 분석(Fairclough, 2001)의 개념에 따라, 본 연구는 텍스트들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말해지고, 이것이 어떠한 사회적 의미를 생성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6명의 주인공들과 이들을 둘러싼 서술자들 사이의 대화 내용 속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어휘는 ‘자산 및 ‘극복의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들이었다. 한 예로, 이수영씨는 “다른 사람은 잘 하는데 왜 나는 못할까 진짜 내가 부족한 게 많아서 그런 거 같다”(25회, 47'34")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비난한다. 이를 들은 조력자는 “무엇보다 자신을 좀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대”(25회, 53'02") 라고 반응하며, 현 상황을 이겨내는 것은 스스로에게 달려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두 대화를 잘 살펴보면, 주인공은 스스로의 관리에 실패하여 자살 위기까지 오게 된 것이며, 반대로 조력자는 스스로를 제어할 줄 아는 능력자가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텍스트는 주인공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내가 부족한 게 많아서 그런 거 같다” (25회, 47'34")

“내가 나를 일으켜 세워야 하나까” (27회, 40'53")

“내가 이겨 내야죠“ (30회, 40'01")

“시련을 겪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불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련 속에서 찾아온 행복이 우리 인생을 더 반짝반짝 빛나게 해줄 겁니다” (32회, 50'41")

화면 밖에선 이들을 지켜보는 또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 첫 번째는 내레이션의 목소리로, 주인공들의 상황을 설명하거나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는 사람들은 직접 관찰되는 주인공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레이션의 목소리에도 자연스럽게 귀 기울이게 되고, 이 서술자의 평가를 자기 생각으로 이입하게 된다.

“내가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우울한 마음은 깊어저만 갑니다” (26회, 47'34")

“하루 종일 PC방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때우던” (27회, 36'53")

“삶의 가치를 잃고 나 자신을 잊은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 (27회, 33'53")

“슬기롭게 이겨내지 못한 게 참 안타깝다” (27회, 45'30")

위의 인용구는 내레이션이 주인공들을 향해 말하는 목소리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살 시도자들의 현재는 ‘무료’하며, ‘슬기롭지 못한’ 사람들이며, ‘잡’이 되는 존재라는 인식을 형성하게 한다. 비록 의도된 바는 아니었겠지만, 이러한 표현들은 시청자들에게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과 평가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내레이션 역시 화면 속 등장하는 조력자들 못지않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연습을 하다보면 언젠가는 세상 중심에 선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겠죠”(27회 39'00)“, “뭐든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조금 더 마음을 다잡아보시기 바랍니다”(30회, 50'51)“,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31회, 51'53)”이라고 말하며 주인공들을 향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변화시킬 것을 요구한다. 주인공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는 별로 관심이 없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노력하지 않고, 안주하려는 주인공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메시지들이다.

스튜디오에서 화면을 지켜보는 3명의 사회자들은 제 3자의 입장에서 주인공들을 바라보며, 이들을 공감하기도 하고, 야유의 목소리를 보내기도 한다. “그럼 안 되지”(25화, 33'27) “쫓쫓...”(25화, 34'20) “아...젊은 친구가...참...”(25화, 35'21) 등 이들은 주인공들을 바라보며 말끝을 흐리거나, 혀를 차고 한숨을 쉰다. 극단적인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주인공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특히, “20대의 나이에 뭐가 하고 싶은 게 있지 않나요”(25화, 39'54)” 라는 말은 ‘왜 인생을 열심히 살아보려 노력하지 않고, 자살을 결심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과 다름없다.

사실 방송에 등장하는 6명의 주인공이 자살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외로움·질병으로 인한 고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끝나갈 때쯤의 주인공들의 모습은 취업이 되었다든지, 경제적 형편이 나아졌다든지, 새롭게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생겼다든지 등 현실의 실질적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주인공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즉, 이들이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던 원인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들의 마지막 모습은 모두 행복하고 활기 있게 묘사된다. 이들은 “못해도 일단 다시 한 번 부딪혀보려고요”(정수진, 25회, 45'14)“, “어차피 살 거면 제가 이겨내야죠”(김명섭, 26회, 50'21)“, “제가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좀 용기를 좀 내보려구요”(이수영, 30회, 42'54") 등 마지막에 새롭게 다진 다짐을 내비친다. 불행했던 그들이 갑자기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인공들 스스로 마음가짐을 바꿨기 때문이다. 즉, 본 다큐멘터리는 개인의 노력으로 흑에서 백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제시한다. 결국, 제 3자가 보기에 자살은 개인의 노력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어 버린다.

앞서 귀인이론을 통해 논의한 바 있듯이, 원인에 대한 책임을 당사자에게서 찾는 메시지들은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낙인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러한 메시지들은 자살 위기에 놓인 사람들에게 자기 낙인으로 작용하여, 스스로의 탓으로 자책하게 만든다. 결국, 이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생각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더욱 고립시키고, 자신들의 상태를 주변에 알린다거나 도움을 청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

### 3. 주인공 화면처리 방식

분석된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주인공 6명 중 3명이 등장과 동시에 가명과 나이를 부여받는다. 자막과 가명은 통상적으로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본 프로그램에서도 인권 보호의 의미로 사용한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본 프로그램에서는 가명과 모자이크 처리의 유무는 가명과 모자이크 처리가 된 사람과 되지 않은 사람의 구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답은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조력자들과 주인공들의 대비를 통해 찾을 수 있다. 가명과 모자이크 처리가 된 주인공들은 처리가 되지 않은 주인공들과 달리 이전에 자살 시도 경험이 있었던 조력자들을 만난다. 자연스럽게 얼굴을 드러내고 화면을 바라보며 의견을 말하는 조력자들과 달리 주인공들의 모습은 모자이크로 가려져 있다. 조력자들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스스로 극복한 사람들이고, 주인공들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살을 시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모자이크 처리는 이러한 대비와 결합하여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기 창피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드러내서는 좋지 않기 때문에 숨겨야 함으로 의미화 되기 때문이다.

가명과 모자이크는 주인공들이 원했기 때문에 부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주인공들은 자살 시도자들이 사회적으로 담당하지 못한 행동임을 지각하고 스스로를 내면화 하여, 자신들의 행동을 대중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습을



숨기려 했을 것이다. ‘우리’와 ‘그들’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이 화면처리 방식에서도 나타나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을 평가하는 사회적 시선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V. 결론

본 연구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의 서사 분석을 통해 자살 시도자들에 대한 재현 방식과 이들을 향한 한국 사회의 시각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연구자들이 주목한 부분은 자살 시도자들을 일반인들과 구분하는 사회적 태도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낙인과 관련된 깊은 두 가지 요소(자살 시도자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 자살위기에 대한 개인의 통제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다큐멘터리 속 자살 시도자들에 대한 이해가 ‘우리’와 ‘그들’이라는 이분법적 논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시선으로 인해 사회적 책임성은 간과되고, 도리어 병약하고 비정상적인 일탈자로서 각인되고 있었다.

먼저, 자살은 개인의 의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가 전적으로 해결해줄 수 없으며 스스로 이겨낼 수밖에 없다는 ‘개인적 책임’의 시각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다큐멘터리는 6명의 주인공이 자살을 생각하게 된 원인이 모두 당사자들에게 있다는 시각을 비추고 있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주인공들의 모습, 이를 책망하는 내레이션의 해설, 주인공들을 타이르거나 야단치는 듯한 패널들의 목소리 등이 바로 자살의 원인을 개인의 노력 부족, 현실 도피로 간주하는 틀로 작용한다. 또한, 취업을 위해 외모를 관리하는 주인공, 공무원이라는 꿈을 갖고 새롭게 도전하는 주인공, 하루 종일 갇혀 지내던 집을 벗어나 취미를 찾은 주인공 등의 모습들은 자살을 결심한 원인은 물론 이를 해결하는 것조차 모두 개인에게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문제의 개인화는 자살을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우리’의 문제보다는 각자 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그들의 문제’로 확정 지어버린다. 특히 자살위기를 극복한 조력자들의 등장은 주인공들과 극명하게 대비되어, 현재의 고통스런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스스로가 이겨내는 수밖에 없음을 강조시킨다. 현대 사회의 가장 심각한 공중보건의 문제인 자살을 개인 스스로의 의지로 이겨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의 안녕을

위한 국가적 책임과 노력은 회피해버리게 만드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다큐멘터리에는 자살을 시도했다는 점, 생각한다는 점 자체는 ‘정신력이 약한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 ‘실패자로서 낙인찍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은 자살 충동을 느끼는, 혹은 자살 위험이 높은 잠재적 자살자들 스스로에게 내면화되어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 및 행동을 차단해버릴 위험성이 높다.

특히, 자살을 개인의 의지의 문제, 즉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바라보는 시각은 자살이 우울증과 관련이 있고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치료와 회복이 가능하다는 메시지 전달을 방해한다. 본 연구의 결과, 정신과적 치료나 상담을 통해 자살의 주된 원인인 우울증이 개선되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주인공들의 분노와 불안, 폭력성 및 정서적 불안감 등의 증상만이 강조됨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장면들은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감시되어야 한다는 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 자살 행위를 바라보는 주류적 시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신건강 문제와 연결된 공중보건의 차원에서 의학적 치료와 사회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대안적 시각의 제시가 시급해 보인다. 이에 대한 한 가지 방법은 자살에 대한 일반인들의 잘못된 지식을 고치고, 자살이 공중보건의 문제이며, 질병이라는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다.

낙인화된 질병에 대한 이해수준(literacy)이 향상되면 이를 둘러싼 낙인이 해소되고, 공중보건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행동이 일어난다(Batterham, Calear, & Christensen, 2013). 바니와 동료들(Barney, Griggiths, Jorm, & Christensen, 2006)의 연구 결과,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수준이 높을수록, 즉 그 원인에 대한 이해와 치료법에 대한 지식을 갖춘 사람일수록 환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차별이 낮아짐을 확인했다. 정신질환자들 역시 질병에 대한 책임이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며, 치료를 통해 나아질 수 있다는 교육을 받게 되자 자기 낙인이 낮아지고, 도움행동에 대한 의도가 높아졌다(Barney et al., 2006; Wright, Jorm, Harris, & McGorry, 2007). 실제로, 미국 클리블랜드 지역의 자살예방 캠페인은 자살을 둘러싼 낙인을 없애는 것을 1차적 목표로 두고, “자살은 예방할 수 있으며, 그 원인은 치료가 가능하다(Suicide is Preventable. Its Causes are Treatable)”라는 메시지를 공중들에게 전달하였다. 캠페인이 끝나고 난 후, 국민들의 태도는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으며, 콜센터 전화가 23%나 증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Oliver et al., 2008).

이러한 까닭에 세계보건기구의 구체적인 자살예방 전략에는 정신건강문제가 자살의 위험요인(risk factor)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WHO, 2012).

본 연구에서 밝혀진 또 하나의 사회적 시선은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로 구분하는 차별의 시선이었다. 다큐멘터리는 주인공들의 온전치 못한 가정환경을 매회 프로그램 도입부에 묘사하며, 건강한 가족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었다. 이 속에는 ‘건강과 ‘불건강’,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이분화된 논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가정은 자연스럽게 비정상적인 가정이 된다. 결과적으로, 자살자가 있는 가정에선 또 다른 자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염려는 오히려 비정상적인 가정을 감시해야 한다는 시각으로 그려진다. 즉, 본 다큐멘터리는 건강 가정을 형성해야 한다는 압박과 동시에 자살 시도자들을 사회가 지정한 범주에서 이탈한 무책임하고 열등한 집단으로 분류해버리는 시각을 생성한다.

자살위기의 책임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지우며,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로 사회적 역할을 제한시키는 관점은 재고되어야 한다. 심각한 자살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살을 이해하는 사회적 인식이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이해되기보다 문제적 행동으로 보는 경향이 일반적인 까닭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자살예방 및 원인에 대한 해결을 사회가 아닌 개인에게서 찾게 만든다(WHO, 2014). 실제 우리 정부는 2004년부터 ‘자살예방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자살 고위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위기관리 서비스, 24시간 현장출동 등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자살생각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된다. 자살시도자 24명 중 18명이 자살예방상담을 받고서도 자살을 했기 때문이다(최인욱, 2014).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자살을 개인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극복해야 할 문제로 규정하고 있는 탓일 수 있다. 슈나이더와 잉그램(Schneider & Ingram, 1993)은 대상 집단의 사회적 이미지가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 관련 정책의 결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자살을 금기시한 분위기가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방해했다”며, 자살을 공중보건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환기할 것을 촉구했다(WHO, 2014). 자살예방을 위한 예산 75억 중 자살인식 개선 노력에 사용되는 비용이 5억에 불과하며, 자살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국내 현실을 볼 때,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자살하는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시각을 제거하는 것이다(이재정·김상우, 2013).

‘무능력함’, ‘나약함’, ‘의지의 부족과 같이 자살 시도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사회적 낙인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고프만(Goffman, 1963)은 사회적 낙인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지만, 낙인으로 인해 구성원들이 구별되고 부정적인 가치평가가 주어지는 것은 사회적 차별의 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낙인은 자살 시도자들에게 사회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로 인식하게 만들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자기 낙인을 야기할 수 있다. 사회적 낙인이 자기 낙인으로 이어지게 되면, 낙인은 사회적 문제가 아닌 낙인찍힌 대상에 대한 개인적 문제가 된다. 또한 그 해결방안도 낙인화된 대상의 내적 역량강화로 귀착된다. 이러한 접근은 사회적 낙인이라는 사회적 문제와 근원을 간과한 채, 낙인화된 대상을 비난하고 이들의 변화만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다. 하지만 역할 정체성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며, 변화할 수 있다는 점(Burke, 1991)에서 해결의 가능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주류담론을 생산하고 주입하는 미디어의 역할이 크다. 앞으로 미디어 콘텐츠 제작 시 사회적 낙인이 대상의 특징을 선택하여 구별하고 범주화하며 명명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Link, Yang, Phelan, & Collins, 2004)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하나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자살 시도자들에 대한 재현 방식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점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질적연구이기 때문에, 연구결과 제시에 있어 양적연구에 비해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질적연구가 갖는 한계를 고려했을 때, 본 연구가 제시한 결과를 객관화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야기 흐름에 집중한 나머지 공간적 배경·자막·카메라 처리 방식 등을 분석하지 못하였다.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 이미지에 대한 분석을 자세히 다루지 못한 점은 후속 연구에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패널의 목소리 분석 역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 패널들의 목소리가 총 9회 중 1회와 2회에만 등장하고 끝났기에 자세한 분석은 하지 못하였지만, 시청자들을 대신하여 주인공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속에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작동한다는 전제하에 미디어의 텍스트를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민수. (2004). 변화하는 사회의 반영,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pp.108-114.
- 김병철. (2007). 한국 언론의 자살 보도에 관한 코퍼스 언어학적 분석: 신문과 텔레비전 방송을 중심으로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8, pp.252-275.
- 김병철. (2010). 자살 보도가 잠재적 자살자에게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학연구, 18(1), pp.41-63.
- 김선임. (2001). TV시사다큐멘터리에 나타난 소외집단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MBC PD 수첩의 영상기법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김인숙. (2009). 연예인 자살보도와 제 3자 효과: 언론의 연예인 자살보도에 대한 태도, 미디어 이용, 미디어 규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9(3), pp.5-36.
- 김연중. (2005). 자살보도 권고기준과 한국 신문의 자살보도 행태 분석. 한국언론학보, 49(6), pp.140-524.
- 김훈순. (2000). 영상매체의 역사 쓰기: KBS의 역사스페셜. 프로그램/텍스트, 3, pp.9-36.
- 김훈순. (2004). 텔레비전 서사연구의 메타분석. 방송연구, 겨울호, pp.167-197.
- 남재일. (2010). 한국 신문의 자살보도의 담론적 성격: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0(3), pp.191-224.
- 민문홍. (2008). 한국 사회의 자살급증 문제에 관한 사회문화적 진단. 생명연구, 11.
- 박용진. (2001). 장애인과 방송 프로그램 그 현황과 문제점. 장애인대상 TV 방송프로그램 모니터 보고서, 서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박형민, 이민아. (2009). 강력사건 및 자살에 대한 언론보도의 실태와 문제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pp.13-137.
- 배준성, 허태균. (2010). 특집호: 스트레스, 우울, 자살의 이해와 예방: 자살보도에 대한 지각과 인식: 사회학습효과의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6(2), pp.179-195.
- 보건복지부. (2014). 2013 자살 실태조사.  
<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retrieveResearchDetailPop>

up.do;jsessionid=51F277F8468F157EF4CC6DA20B071546.node02?research\_id=1351000-201300187.

- 안신. (2013). 영화에 나타난 자살과 종교치유에 관한 연구: 도가니, 내 이름은 칸, 세 얼굴이를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23, pp.307-347.
- 양정혜. (2007). 소수민족 이주여성의 재현:국제결혼 이주여성에 관한 뉴스보도 분석. **미디어, 젠더&문화**, 7, pp.47-77.
- 양정혜, 노수진. (2012). 휴먼 다큐멘터리가 재현하는 장애인-KBS 인간극장에 나타난 장애인 내러티브 분석. **한국방송학보**, 26(3), pp.371-415.
- 원용진. (1999). 담론적 접근으로 풀어 본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텔레비전 문화연구**, pp.135-168. 서울: 한나래.
- 유현재, 송지은. (2012). 미디어의 성격별, 자살관련 보도의 스타일에 대한 분석. **보건사회연구**, 32(2), pp.427-467.
- 이재경. (2004). 한국 가족은 위기인가? 건강가정 담론에 대한 비판. **한국여성학**, 20(1), pp.229-244.
- 이채정, 김상우. (2013). 자살예방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사업평가현안분석 제49호). **국회예산정책처**.
- 이하나, 안순태. (2013). 자살예방뉴스의 낙인(stigma) 요소에 대한 분석. **한국언론학보**, 57(4), pp.27-47.
- 장혜경, 우아영. (2011). TV 다큐멘터리가 생성한 정신장애 담론: 구별 짓기의 완성. **사회복지연구**, 42(1), pp.179-217.
- 정승민, 박영주. (2009). 자살보도가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조건적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8(2), pp.153-182.
- 전규찬. (1998). TV 다큐멘터리와 현실 '조작'. **저널리즘 비평**, 26, pp.104-107.
- 조규찬. (2014). 김기덕 영화 피에타에 나타난 가족과 자살 연구. **인문학연구**, 94, pp.371-395.
- 최성주. (2001). 2001년 방송에 나타난 장애인 이미지 분석. 장애인먼저실천을 위한 방송개입전략세미나 발제문.
- 최인옥. (2014. 12. 10). 안이하다...세계 1위 '자살 국가'.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8401.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8401.html) 에서 2015.1. 인출.

- 최현주. (2006). 다큐멘터리 장르에 따른 서사구조 비교분석. *언론과학연구*, 6(2), pp.415-441.
- 한국건강증진재단. (2013). 우리나라 일반국민과 정책결정자들에 대한 자살인식조사 연구. 서울: 한국건강증진재단
- 한국자살예방협회. (2005). 생명존중에 대한 국민태도 조사, 서울: 한국자살예방협회
- 홍자아, 김훈순. (2010). 다인종 가정 재현을 통해 본 한국사회의 다문화 담론. *한국방송학보*, 24(5), pp.44-583.
- Akers, R. L. (1973). *Deviant behavior: A social learning approach*. Belmont, MA: Wadsworth.
- Akers, R. L. (1998). *Social learning and social structure: A general theory of crime and deviance*.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 Ball-Rokeach, S. J., & Loges, W. E. (1996). *Making choices: media roles in the construction of value-choices*. In *The psychology of values: The Ontario symposium*(Vol. 8, pp.277-298). Erlbaum Mahwah, NJ.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http://www.esludwig.com/uploads/2/6/1/0/26105457/bandura\\_sociallearningtheory.pdf](http://www.esludwig.com/uploads/2/6/1/0/26105457/bandura_sociallearningtheory.pdf).
- Barney, L. J., Griffiths, K. M., Jorm, A. F., & Christensen, H. (2006). Stigma about depression and its impact on help seeking intentions.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40(1), pp.51-54.
- Batterham, P. J., Calear, A. L., & Christensen, H. (2013). Correlates of Suicide Stigma and Suicide Literacy in the Community.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43(4), pp.406-417.
- Burke, P. J. (1991). Identity processes and social str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pp.836-849.
- Chatman, S. (1978). *Story and Discourse: 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 한용환 (역)(2003).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이야기와 담론*. 푸른사상.
- Corrigan, P. W. (2000). Mental health stigma as social attribution: Implications for research methods and attitude change.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7, pp.48-67.

- Corrigan, P. W., & Watson, A. C. (2002). The paradox of self-stigma and mental illness.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9, pp.35-53.
- Cvinar, J. (2005). Do suicide survivors suffer social stigma?: A review of the literature. *Perspectives in Psychiatric Care*, 41, pp.14-21.
- Eagles J. M., Carson D. P., Begg, A., & Naji, S. A. (2003). Suicide prevention: a study of patient's view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82, pp.261-265.
-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pp.51-58.
- Fairclough, N. (1995). *Critical Discourse Analysis*. London: Longman.
- Fairclough, N. (2001). *The discourse of new labour: Critical discourse analysis. Discourse as data: A guide for analysis*. London: Longman.
- Gamson, W. A., Croteau, D., Hoynes, W., & Sasson, T. (1992). Media images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Annual Review of Sociology*, pp.373-393.
- Gerbner, G. (1973). Cultural indicators: The third voice.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ocial policy*, pp.555-573.
- Giles, D. C. (2003). Narratives of obesity as presented in the context of a television talk show.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8(3), pp.317-326.
- Goffman, E. (1963). *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NY: Simon & Schuster.
- Gronbeck, B. E. (1983). Narrative, enactment, and television programming. *Southern Journal of Communication*, 48(3), pp.229-243.
- Hall, S. (1982). *The rediscovery of 'ideology': Return of the repressed in media studies*. In M. Gurevitch, T. Bennett & J. Curran(Eds.), *Culture, Society and the Media*. pp.57-90. New york: Methuen.
- Hodgetts, D., & Chamberlain, K. (1999). Medicalization and the depiction of lay people in television health documentary. *Health*, 3(3), pp.317-333.
- Link, B. G., Cullen, F. T., Struening, E., Shrout, P. E., & Dohrenwend, B. P. (1989). A modified labeling theory approach to mental disorders: an empirical assess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pp.400-423.



- Link, B. G., Yang, L. H., Phelan, J. C., & Collins, P. Y. (2004). Measuring mental illness stigma. *Schizophrenia Bulletin*, 30(3), pp.511-541.
- Lippman, W. (1922). *Public opinion*. New York: Free Press.
- McComas, K., & Shanahan, J. (1999). Telling stories about global climate change measuring the impact of narratives on issue cycles. *Communication Research*, 26(1), pp.30-57.
- Morgan, M., Shanahan, J., & Signorielli, N. (2009). *Media Effects: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3rd edition, New York: Routledge.
- Nichols, B. (1991). *Representing reality: Issues and concepts in documentary*(Vol. 681). Indiana University Press.
- Oliver, R. J., Spilsbury, J. C., Osiecki, S. S., Denihan, W. M., Zureick, J. L., Friedman, S. (2008). Brief report: preliminary results of a suicide awareness mass media campaign in Cuyahoga county, Ohio.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38, pp.245-249.
- Philo, G. (1993). *Media representations of mental health/illness: audience reception study*. Glasgow University Media Group.
- Schneider, A., & Ingram, H. (1993). 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populations: Implications for politics and poli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7(2), pp.334-347.
- Scheff, T. J. (1974). The labelling theory of mental illn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pp.444-452.
- Schwarzer, R., & Weiner, B. (1991). Stigma controllability and coping as predictors of emotions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1), pp.133-140.
- Storey, J. (2001). *Cultural theory and popular culture: an introduction*. Pearson Education.
- Stryker, S. (1991). *Exploring the relevance of social cognition for the relationship of self and society: Linking the cognitive perspective and identity theory*. In *The Self-Society Dynamic: Cognition, Emotion, and Action*. ed. JA Howard. PL Callero, pp.19-4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ryker, S. (2008). From Mead to a structural symbolic interactionism and beyond. *Annual Review of Sociology*, 34, pp.15-31.
- Todorov, T. (1997). *The Grammar of Narratives in the Poetics of Prose*, trans. Richard Howard,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Wahl, O. (1995). *Media madness*. New Brunswick: Rutgers UP.
- Walters, S. D. (1995). *Material girls: Making sense of feminist cultural theor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eimann, G. (2000). *Communicating unreality: modern media and the reconstruction of reality*. SAGA Publication.
- Weiner, B. (1980). A cognitive(attribution)-emotion-action model of motivated behavior: An analysis of judgments of help-giv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2), pp.186-200.
- WHO. (2014). *Preventing suicide: A global imperative*.  
[http://apps.who.int/iris/bitstream/10665/131056/1/9789241564779\\_eng.pdf](http://apps.who.int/iris/bitstream/10665/131056/1/9789241564779_eng.pdf).
- WHO. (2012). *Public health action for the prevention of suicide*.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 Williams, R. (1985).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Oxford University Press.
- Wright, A., Jorm, A. F., Harris, M. G., & McGorry, P. D. (2007). What's in a name? Is accurate recognition and labelling of mental disorders by young people associated with better help-seeking and treatment preference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2(3), pp.244-250.

이하나는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국립암센터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적 낙인과 자살예방 연구이다.

(E-mail: hoy1222@naver.com)

안순태는 미국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에서 매스커뮤니케이션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Kansas State University에 부교수로 봉직하였고 현재는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취약계층 미디어 효과와 헬스커뮤니케이션이다.

(E-mail: soontae@ewha.ac.kr)

## Korean Society’s Perception toward Suicide: “Us” and “Them” Represented in a TV Documentary

**Lee, Hannah**

[Ewha Womans University]

**An, Soontae**

[Ewha Womans University]

---

Korea’s high suicide rates accompany negative attitudes toward suicide and those who commit suicide. To address the problems of Korean society’s dominant perception toward suicide, we aim to critically examine media’s role in reconstructing reality. Focusing on stigma toward social minorities, we examined how those with suicide attempts were shown in a TV documentary. This study analyzed KBS 1TV’s ‘Happiness Generator: Zero Abandonment Project’ based on the Todorov and Chatman’s narrative analysis method to see the mainstream perception of suicide in Korean society. Results identified two dominant ideologies on suicide. First was the ‘individual responsibility’ argument suggesting that suicide is a personal matter in which individuals should cope with, without relying on society. The individual responsibility argument attributed the causes of suicide attempts to the individual themselves which, in turn, can be overcome by their own will. The second ideology was the ‘normal family’ argument, emphasizing that stable emotional states can be only obtained in a normal family structure. Those with suicide attempts were described as people from unhealthy, abnormal families. The normal family argument repeatedly reinforced the stereotypical perception that single parent families or torn-apart families cannot help but yield troublesome individuals.

---

**Keywords:** Suicide, Stigma, Media, Television Documentary, Discourse